LS 증권 주간 Global ESG News

주간 ESG 뉴스 2025.11.21~2025.11.28

구분	시장 동향
Energy	● **일본, 세계 최대 원전 '가시와자키 가리와' 재가동 승인** (2025.11.21, 블룸버그) 일본이 가시와자키 가리와(KK) 원전 6·7호기 재가동을 공식 승인. 이는 AI 및 데이터센터 붐으로 급증하는 전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 재가동 시 월 13만 톤의 LNG 수입 대체 효과가 발생해 글로벌 가스시장 수급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
	● **COP30 폐막, '화석연료 단계적 퇴출' 문구 삭제** (2025.11.24, Health Policy Watch) 금번 COP30에서 산유국들의 강력한 반발로 최종 합의문에 '화석연료 퇴출(Phase-out)' 문구를 넣지 못한 채 폐막함. 대신 각국이 자율적으로 수립하는 '국가별 전환 로드맵'으로 후퇴하며, 강제성 없는 기후 합의의 한계가 명확히 드러남
Government	● **EU, COP30 합의 불발에 독자적 'CBAM 확장' 카드 꺼내** (2025.11.24, Mongabay) 글로벌 탄소 가격제 도입 무산 후 EU 집행위가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의 적용 대상을 기존 철강/시멘트에서 플라스틱 및 유기화학물질로 조기 확대할 계획. 이는 무역 장벽을 통해 환경 규제를 강제하겠다는 '녹색 보호주의' 선전포고
	● **호주 정부, 녹색당 합의로 환경법 전면 개정** (2025.11.26, 로이터) 호주 정부가 녹색당 지지를 확보하며 교착 상태였던 환경법 개혁안 처리에 합의. 핵심은 강력한 법 집행 권한을 가진 독립적인 환경보호청 설립으로, 향후 광산 및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의 환경 영향 평가와 승인 절차가 대폭 까다로워질 전망
Corporations	● **X-Energy, SMR 상용화 위해 $700M 대규모 투자 유치** (2025.11.24, 블룸버그) Amazon이 지원하는 차세대 원전 기업 X-Energy가 D Series 라운드에서 $700M를 조달. 확보된 자금은 텍사스 Dow 화학 공장과 워싱턴 Amazon 데이터센터에 전력을 공급할 SMR 상용화에 투입될 예정
	● **RedWood Material, 그리드 배터리에 사업 집중** (2025.11.26, Bloomberg) 배터리 재활용 기업 RedWood가 그리드 스케일 배터리에 사업을 집중하기로 결정. 이는 EV 판매가 둔화되는 가운데, 데이터센터 관련 전력망 수요가 확대되고 있기 때문. 참고로 동사의 CEO는 테슬라의 공동 창업자 출신
Funds	● **덴마크 Industriens Pension, 전력망 투자 필요성 주장** (2025.11.24, AMWATCH) 덴마크 연기금 Industriens Pension은 전력망 확장에 대한 투자 잠재력을 인정. CIO는 인터뷰를 통해, 덴마크 전력망 확충에 추가적 자본 투입 필요성을 주장. 특히 "정부가 민간 자본에 길을 열어주면, 상당한 투자 수요가 있을 것"이라 언급하기도. 참고로 해당 연기금은 이미 재생에너지 분야에 대규모 자금을 투자해온 바 있음
	● **말레이시아 KWAP, 기후 리스크 핵심 전략으로 선정** (2025.11.24, Asian Investor) 말레이시아 연기금 KWAP은 기후변화를 위탁운용의 핵심(fiduciary duty)로 격상. 즉 기후변화가 자산 가치에 실질적 영향을 주는 리스크로 판단하고, 투자 의사결정의 중심에 두기로 결정한 것. 실제 연기금 내 기후투자 전담팀을 구성하고, Dana Iklim+ 등을 출범하기도
	● **뉴욕 주요 연기금, 정부 압력 지속** (2025.11.20, ESGDIVE) 뉴욕 주요 연기금(NYSTRS, NYCERS, NYC BERS)은 ESG 관련 정부 압력 지속되는 양상. 뉴욕시 감사원장 브래드 랜더는 3대 운용사-BlackRock, Fidelity, PanAgora-제외를 권고. 근거는 해당 기관들이 뉴욕시의 기후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것. 이에 해당 운용사들은 공적 연기금의 정치화를 비판 중

자료: 언론보도, LS 증권 리서치센터

Compliance Notice

본 자료에 기재된 내용들은 작성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작성자: 투자전략팀).

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본부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유가증권 투자 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의 동의 없이 복제, 배포, 전송, 변형될 수 없습니다.

_ 동 자료는 제공시점 현재 기관투자가 또는 제 3 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_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당사에서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_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 당사의 조사분석 담당자 및 그 배우자 등 관련자가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_ 동 자료의 추천종목에 해당하는 회사는 당사와 계열회사 관계에 있지 않습니다.